

실미도 안국사 중창 “호국영령이여 쉬소서”

시청각 시설 갖춘 현대식 법당... 박호석 법사 문정주 중령 불사 발 벗고 나서

15평의 넓고 비좁은 공간에 최대 수용인원 30여 명. 난방이 되는 곳도 아니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병사들은 법당 밖에서 찬바람을 쐬며 서서 기다리곤 했다. 실미도 희생자와 군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육군 제11보급대대 법당은 유난히 춥고 낙후돼 있었다.

담당 법사도 없던 이곳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군법사지원단 박호석 법사(한국농촌문화연구원 조교수, 前농협대 교수)와 문정주 중령(11보급대대 부대장)이 법당 중창 불사에 발 벗고 나선지 4개월 만에 법당이 완공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 28일 육군 제11보급대대 법당 안국사(安國寺) 극락전 낙성법회와 아이티바를 접안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법현 스님, 고양시 사암연합회장 대오 스님, 군종교구 총무국장 정범 스님, 前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장군, 前 1군단사령관 김척 장군, 前 3군수지원사령관 김문조 장군, 3군수지원사령관 안인숙 중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군 영령들과 실미도 희생자들을 잘 모시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불사에 애쓴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낙성법회에서는 이견호 추진위원장, 박호석·송춘희 지도법사에게 제3군수지원사령관 감사장을, 문정주 중령에게는 군종교구장 표창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안국사를 보면 눈물이 난다는 박호석 법사는 지난 4개월 동안 중창



11월 28일 안국사 낙성법회에 참여한 군불교 관련 인사들이 테이블팅팅을 하고 있다.

불사 모금활동을 펼쳐왔지만 보시의 손길이 이어지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했다.

박 법사에게 완공 소감을 묻자 “아직 갈 길이 멀다. 군부대내 종교 시설 중 불교는 기독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종교 시설이 있어야 포

교도 이뤄진다”며 우려했다. 이어 박 법사는 “군법당 불사를 할 곳은 많은데 대형 사찰과 스님들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오히려 청주 시골마을에 있는 조그만 사찰에서 모 비구니 스님이 청년 포교를 위해 써달라며 백중불사, 49제 등을 통해 들어온

수익금 800여 만원 전액을 보시했다. 또 어렵게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능곡 모 사찰 스님도 500여 만원을 선뜻 내놓으며 격려했다”며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새롭게 세워진 안국사는 외관 도색과 단청, 석재공사 등이 남아있지만 군장병들처럼 튼튼하고 잘 생겼다. 총 1억 5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법당은 66평 규모로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조와 불방 방식은 기존 형식을 탈피해 현대적 개념으로 설계 돼 보다 많은 장병들이 거부감 없이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종교행사는 물론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 시설과 피아노 등의 시설을 갖춰 군법당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사장 추천권 반납하라”

BBS 노사, 진흥원 비판 한 목소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의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이하 BBS) 사장후보 추천을 두고 BBS노조와 간부진이 모두 진흥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불교방송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월 24일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 사장 추천권을 반납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이번 사장 후보 추천은 불교방송의 자존심과 불교방송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진흥원의 사장추천이 표류해 불교방송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며 “역량이 안된다면 진흥원은 사장 추천권을 불교방송재단 이사회에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BBS 간부진은 11월 30일 ‘불교방송의 품격을 우롱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진흥원의 BBS 사장 후보 추천은 추천권의 정확한 의미를 외면해 BBS의 품격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BBS 간부진이 진흥원을 비판하는 이유는 사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BBS 간부진은 “그동안과 달리 진흥원은 이번 사장 후보 공모과정에서는 비공개로 일관해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였고, 사장 공모자격을 상식에 결맞지 않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BS 간부진은 “조계종 중앙총회의 사장 후보 추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사장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은 불교계 최대 종단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부진까지 진흥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계에서는 최근 (영담 스님측) 김영일 BBS 전무부 사장대행으로 임명하는 등 과도기적인 해도 독자 경영구도를 굳혀 가려는 과정에서, 진흥원이 사장 후보 추천을 감행해 예견된 갈등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한 관계자는 “이사장으로서 BBS를 장악한 영담 스님의 리더십이 노조와 간부진의 성명서까지 이끌어냈다”며 “이사회 공의체제 거대공공인 진흥원과 원동체제에 가까운 BBS간 갈등의 결말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진흥원측은 “BBS사장 후보 추천은 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절차에 의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별다른 공식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11월 11일 제134차 이사회에서 방송전문가인 김정학 씨와 미디어 광고전문가인 윤태원 씨를 북수 추천하기로 결의·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과 BBS간의 갈등에 조계종 중앙총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도 11월 30일 ‘조계종과 대한불교진흥원간 관계규명을 위한 질의의 건’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문건에는 과거 진흥원 이사회 의록을 근거로 “조계종이 추천한 스님을 이사로 선임할 의지가 있는지” 등 10가지 질의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섭 기자

사천왕사지서 청동불상 출토

통일신라 조성 추정... 높이 5.04cm

통일신라의 호국사찰이었던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불상(높이 5.04cm)이 출토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묵)는 11월 30일 사천왕사와 분황사 등 신라 주요사찰 유적에서 2009년도 조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는 통일신라 초기 문무왕 19년(679) 창건된 사찰로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4차례 걸쳐 진행중이다. 올해에는 동해남부선(철도)에 의해 유실된 강당지(7×3칸 규모) 일부가 확인된 것을 비롯해 서회랑지의 규모(1칸×32칸, 길이 81m)가 확인됐다.

지병묵 소장은 “사천왕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사천왕사지의 전체적인 가람배치를 명확히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천왕사 목탑의 기반부 면적으로 알려진 녹유소조상 중 전제도상이 확인된 A상(왼손에 칼을 든 상, 좌측상), C상(오른손에 칼을 든 상, 우측상)을 높이 90cm, 너비 70cm, 두께

7~9cm의 크기로 복원 중이다.

지 소장은 “녹유소조상 복원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사천왕사 목탑지 기반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990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한 분황사도 올해 조사결과에서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대형 석축배수로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박중희 학예관은 “황룡사지 동쪽에서 분황사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석축배수로는 단위 유적에 부속된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라 신라왕경 전체를 관장하는 방리제(防里制)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설치된 신라왕경 하수도 시설의 일부부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종섭 기자



사천왕사지 출토 청동불상.

“매년 장학금 지원”

공플란트 최우환 원장

서울 견지동 공플란트지과 최우환 원장은 11월 2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10여 명에게 장학금 총 500여 만원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동행’(상인이 사 해경)에 매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해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수혜자 학생대표 고등학생,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지겨 스님, 구립동대문청소년독서실 이봉해 관장 등이 참석했다.

최우환 원장은 매달 서울 대각사(주지 장산)와 조계사(주지 세민)에서 선정한 주 의탁 독거노인 틀니 시술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3명을 선정, 무료 치료도 하고 있다. 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거점병원으로서 봉사하며 대의왕의 길을 걷고 있다.

이상연 기자

해외사적 보존·활용 사례집

문화재청, 69곳 유적 조사 결과 수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최근 해외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 사례를 수집·정리한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3~2009년 유럽과 아시아 10개국, 69곳의 유적지를 조사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보존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9가지로 분류해 정리한 것이다.

유적지별로 간략한 정비원칙과 방향을 설명하고 복토(覆土, 흙을 덮어 보호), 유구 보호시설의 설치, 부분적 복원 및 지구정비 등 유적지의 보존·활용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일본 나니와노미야 유적(難波宮

跡)에서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구의 위치를 표현하는 정비 방법, 일본의 사누키 국분사 유적(?岐?分寺跡)에서와 같이 유적의 일부를 복원해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 독일의 비마르크트유적(Themnen am Viehmarkt)에서와 같이 유적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현대적 기능을 부여해 문화시설로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수록됐다.

김봉건 소장은 “이번 자료집은 유적지 성격과 상황에 맞는 보존원칙이나 구체적인 지침 없이 관리기관별로 진행해 오던 정비사업에 참고 자료로 활용돼 체계적인 정비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북한 특산품 판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와 북한상품 전문거래업체인 ‘한민족유통’은 12월 1~3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북한 특산품을 판매전

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금강산에서 채취한 야생터미를 비롯해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상황버섯과 차, 버섯, 재래식장 등이 판매됐다.

박선주 기자

열반 5주기 송산 스님 사리탑 제막

생전에 ‘세계 4대 생불’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송산행원(1927~2004년)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이 12월 4일 서울 화계사에서 봉행됐다.




4일 화계사에서 제막된 송산행원 대종사 사리탑.

송산 스님 열반 5주기를 기념해 스님의 제자들과 뜻있는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봉행된 제막식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원로의원 법흥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 의장 보선 스님, 수덕사 주지 웅산 스님, 호법부장 덕문 스님, 화계사 주지 수경 스


님을 비롯한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형의 사리탑은 삼학도·팔정도·육바라밀을 근본으로 삼아 3층석탑으로 조성됐다.


박선주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업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노라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으시라.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현 중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